



60~70년대 전위 작가들, 눈부신 '팔순 청춘'展

국제무대에 한국의 단색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국제갤러리에서는 하종현 작가 개인전(18일까지)을 마련했다. 70년대부터 선보인 '접합' 연작의 새로운 버전 10여점이 구작과 함께 전시됐다. 접합은 캔버스 천을 대신한 마대의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작업방식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마대 뒷면에서부터 물감을 짓이겨 밀어올리고 이를 질료삼아 마대 천 앞면에서 붓질의 행위를 통해 격자무늬 등을 만들어낸다. 신 버전에는 과거 없던 스트라이프 무늬가 등장한다. 굵은 스트라이프는 목수가 힘차게 대패질한 듯, 혹은 큰 붓으로 일획을 그은 듯 마티에르가 살아있다. 끝부분은 물감을 덩어리째 말아 올려 부조의 효과까지 노린다.

6·25전쟁 이후 미군의 원조 구호물자를 담거나 참호에서 모래주머니로 쓰이던 천이 마대다. 배고픔과 전쟁의 상징으로 작가가 사용하는 재료이지만, 단색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마대 자루는 역설적으로 '풍요의 퍼포먼스' 같다.

김미경 강남대 교수는 "서구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수년전부터 커지면서 실험미술과 단색화가 조명 받고 있다"면서 "두 흐름이 태동한 시대적 배경은 비슷하다. 하지만 단색화가 70, 80년대를 풍미한 엘리트 미술이었다면 실험미술은 체제 저항적인 언더그라운드로서 비주류를 면치 못했다"고 말했다. 과거 상황은 달랐지만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국제무대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주자로 나란히 자리매김하고 있다.